

10/27/19

설교 제목: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4 장 1-9 절

- (막 14:1)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 (막 14:2)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 (막 14:3)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 (막 14:4)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절관주** 마 26:8, 요 12:5
- (막 14: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 (막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 (막 14: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 (막 14:8)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절관주** 막 16:1, 요 19:40
- (막 14: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붙잡히시기 바로 이틀 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4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책마다 사건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것들이 각각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모두 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왜 이것들을 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이것들이 각각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태와 마가 복음에는 모두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요한 복음에는 유월절 엿새 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복음에는 시기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마 26:2)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막 14:1)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요 12: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나 요한 복음에서 엿새 전이라고 한 것은 향유를 부은 시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하신 때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타고 입성하셨고 그 후 낮에는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다가 밤에 베다니로 돌아오시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2. 이것들이 각각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 누가 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 요한 복음에는 베다니라고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문둥이 시몬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베다니라는 소외된 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마침 그곳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 26:6)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막 14:3)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눅 7:36)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요 12: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3. 이것들이 각각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건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마태 복음과 마가 복음은 그냥 한 여자라, 누가 복음은 죄인인 한 여자라, 요한 복음은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 26: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막 14:3)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눅 7:37)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요 12: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기서 문제는 그럼 베다니 마리아가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녀가 전에 창녀였다는 설이 있긴 합니다.

또한 죄인인 한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며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다니며
그들의 뒷바침을 해 주었던 여인으로 고향이 막달라이었으며 베다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여인입니다.

단지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은 찬송가 211 장의 잘못된 가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이것들이 각각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인이 향유를 부은 신체 부위가 다르다고 합니다.

마태 복음과 마가 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누가 복음과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 26: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 26: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막 14:3)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막 14:8)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눅 7:38)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눅 7:46)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요 12: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나 이것은 사복음서 기자들의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각하려고 한 것으로, 예수님은 몸에 기름을 부은 것을 강조함으로써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누가와 요한은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 준 것을 강조함으로써 여인의 헌신과 순종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다고 이같은 사건들이 며칠 간격을 두고 몇건이나 발생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들은 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웬지 여기에 복선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막 14:1)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막 14:2)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절기들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신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근거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도록 의무로 규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삼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사는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여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담을 건너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절기 이름도 담을 넘어간다는 의미의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땅에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기어 죽음을 면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오면서 겪은 고생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로 유월절 다음날부터 7일간 지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로 간주되어 나산월 14-21 일까지 8일간 지켜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같은 연유로 예수님은 죽으시되 유월절 절기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유월절 절기다 가까와 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모든 종교 재판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작정을 하고 모여 그 방도를 논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 초정을 받아 가셨습니다.

(막 14:3)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식사 도중 한 여인이 매우 값진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나드 향은 매우 값진 향유로 삼백 데나리온 정도 하는 당시 노동자들의 일년치 임금과 거의 맞먹는 고가품입니다.

이 향유는 중동 지역 처녀들이 결혼할 때 온 몸에 발랐던 향유로 아마 이 여인도 결혼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것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한 복음은 이 여인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와 마르다의 형제인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늘 예수님 곁에 앉아 그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그 마리아였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막 14:4)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막 14: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 부어 낭비를 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들의 비난은 언뜻 듣기에 별 무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라도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막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당신을 향한 사랑을 아셨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보다 더 값진 일입니다.

요한 복음은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 부은 여인을 비난한 자가 가롯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롯 유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 12: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요 12: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 12: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는 그들이 진정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그들은 십일조를 드릴때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막 14: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막 14:8)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알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번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 듣고 값진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쏟아 부어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를 비롯해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인 이 여인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등 몇몇이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긴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 사후의 일이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그분의 몸에 값진 나드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내노라 하는 제자들을 비롯해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잘 것 없는 죄인인 이 여인이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은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느냐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항상 그분 곁에 앉아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언니인 마르다가 사람들 접대는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에 대해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 놓을 정도로 그녀는 예수님 곁을 떠나길 원치 아니했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여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당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막 14: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의 행적을 알고 이 믿음의 여인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은 베다니 마리아가 한없이 부럽지 않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이 주님과 교통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의 뜻이 이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던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